양다혜

디자이너 양다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무처럼 보기 좋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리빙 제품을 디자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디자이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Yang Dahye

I'm designer Yang Dahye. I first think about what someone needs in various situations, as well as a tree-like design that we need in any form. Through these concerns, I am trying to design living products and become a designer that everyone needs.